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3~9/9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2	틱낫한 행복	틱낫한	불광출판사
3	전심법요 완릉록	정운	운주사
4	하루 한 컷 내 인생 위로하는 영화대사 필사	육상효	모과나무
5	월호스님의 화엄경 약찬게 강설	월호	조계종출판사
6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	사지 하루오	불광출판사
7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	묘장	불광출판사
8	초역 부처의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9	꽁꽁 싸맨 보따리	이성수	담앤북스
10	날마다 부처님(불교컬러링북)	무여	그봄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수심결과 마음공부	법상	불광출판사
3	네가지마음 챙기는 공부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4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6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스님	조계종출판사
7	스스로 깨어난자 붓다	카렌암스트롱/정영목	푸른숲
8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덕조 글,사진	김영사
9	이와같이 살았으면(무비스님의 보현행원품 해설)	여천 무비	염화실
10	뜻대로 안돼도 괜찮아(대원불교 문화총서9)	한상희/윤정은 그림	운주사

‘인연’과 ‘생명’에서 삶의 지혜를 찾다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
묘장 스님 지음 / 소리여행 그림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나는 절로’를 기획한 묘장 스님. 현재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소임을 맡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청춘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는 매회 1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올해 4월 하동 쌍계사에서 열린 ‘나는 절로’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과 묘장 스님(아래 왼쪽에서 첫 번째)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기념 촬영. 현대불교 자료사진

‘나는 절로’ 탄생과 숨겨진 얘기
‘힙 불교’는 틀 깨고 다가선 덕분
사랑 본질 담은 불교 일화 지혜도
“운명 대신 매일 인연 가꾸려 노력”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나는 절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청춘남녀들을 위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는 명실상부 불교계 대표 ‘히트 상품’이다. 매회 20~30명 정원에 1000명이 넘게 접수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유력 언론에서도 취재 열기가 뜨겁다.

‘나는 절로’의 인기를 견인한 이는 최근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소임을 맡았던 묘장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스님은 신작 에세이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에서 ‘나는 절로’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회차별 숨겨진 뒷이야기와 참가자들의 사연 등을 풀어놓았다.

‘나는 절로’는 10여년 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해 온 ‘만남 템플스테이’를 개편한 것으로, 2023년 11월 열린 1기와 12월 실시한 2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흥미를 자극하는 제목이 한몫하는데, 이는 홍보 SNS에 달린 “그럼 이건 나는 솔로가 아니라 나는 절로네”라는 댓글에서 힌트를 얻은 것.

이듬해 강화 전등사에서 열린 3기부터는 프로그램도 대폭 손질했다.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푸른 자연의 마곡사, 시원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낙산사, 단풍이 아름다운 백양사 등을 개최지로 선정했다. 또 참가자들이 실명이 아닌 가명을 쓰도록 했고,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취침 시간을 저녁 9시에서 11시로 늦춰 대화 시간을 확보했다. 또 게임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이에게 원하는 상대와 저녁 공양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줘 참여 열기를 높였다.

스님들은 후원자를 자청했다. ‘나는 절로’ 개최 사찰의 주지 스님들은 참가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인생 조언을 건네는 한편, 커플로 맺어진 이들에게 ‘현커(현실 커플) 지원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하동 쌍계사 편에 직접 참석해 따뜻한 법문과 선물을 전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커플 성사율은 최고 60%에 이르렀고, 실제 결혼에 골인한 이들도 있다. ‘나는 절로’ 공식 1호 예비부부는 오는 10월 19일, 2호 예비부부는 11월, 3호 예비부부는 내년 6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템플스테이가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묘장 스님은 “남녀의 인연을 만들어 주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은 아니지만, 세상의 어려움을 보듬은 일이야말로 지극한 자비의 실천이기에 ‘나는 절로’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님은 ‘나는 절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기존의 틀을 깨고 적극적으로 현실에 다가서려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최근 불교가 ‘힙(Hip)’해진 이유 역시 “낮은 진입 장벽, 넓은 포용성, 마음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금의 이 흐름이 짧은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한국불교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한편, 책의 2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에는 사랑의 본질을 일깨우는 불교 일화를 담았다. 묘장 스님은 고타마 싯다르타와 야소다라, 마하가섭 존자 부부, 의상 대사와 선묘 낭자 등의 일화를 통해 ‘사랑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사랑이 되는’ 인연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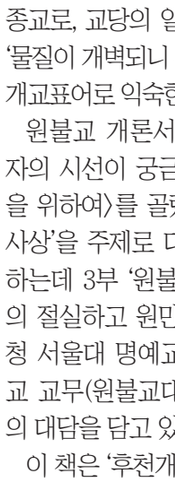
“사랑은 단지 두근거리는 감정 그 이상이다. 뭇 생명을 부처로 보았던 부처님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만한 공덕 지음이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 또한 행복할 것이요,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나 또한 해탈할 테니 말이다.”

3부 ‘끝없이 넓은 세계와 나와 남이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다’에는 일상의 지혜를 전하는 글이 실려 있다. 묘장 스님은 주지로 있는 연화사에서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청년밥心’과 MZ세대들을 위한 ‘부처님 생신 카페’ 등을 운영한다. 부처님의 대기설법처럼 현대인들의 눈높이와 생활방식에 맞게 불교를 각색한 ‘맞춤 포교’다. 이를 통해 스님은 불교를 ‘지금 여기’에 숨 쉬는 종교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묘장 스님은 갈수록 사람을 대하기 힘들어지고, 관계 맺음이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여겨지는 건 “그 사이에 욕망과 욕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가꿔 가는 좋은 인연의 기술”이라고 당부한다.

이웃 종교 책 읽기

가깝고도 먼 종교, 원불교



세계적 K사상을 위하여
백낙청 외 지음
창비 / 2만5000원

‘개벽사상’ 주제로 종교 탐구
원불교 일원상·윤회설 등 논의

불교와 가장 가깝고도 먼 종교는 원불교가 아닐까. 원불교는 우리나라 7대 종단 중 하나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의 단체에서 불교를 비롯한 이웃 종교들과 교류하고 있다.

하지만 원불교에 대해 ‘잘’ 아는 불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1916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창시한 종교로, 교당의 일원상(一圓相) 혹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어로 익숙한 정도가 아닐까.

원불교 개론서들은 많지만 외부자의 시선이 궁금해 〈세계적 K사상을 위하여〉를 골랐다. 이 책은 ‘개벽사상’을 주제로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는데 3부 ‘원불교, 자본주의 시대의 절실하고 원만한 공부법’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전도연 원불교 교무(원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의 대담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후천개벽사상이 동학에서 시작해 원불교에까지 이르는 하나의 큰 전통을 이루었고, 그 속에서 원불교가 가장 원만한 진전을 이룬 사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백낙청 교수는 “소태산 박중빈 선생에 와서 후천개벽사상이 불교와 융합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 소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의 전편(前篇)은 〈개벽사상과 종교공부: K사상의 세계화를 위하여〉(창비, 2024)이다. 여기서는 △소태산 박중빈은 누구인가 △정신개벽 운동의 시작 △최초의 설법에 담긴 뜻 등 다소 기초적인 주제들을 다뤘다.

이번 책에서는 △원불교에서 물질과 정신, 초월적 유일신의 문제 △‘일원상’에 담긴 동아시아의 종합적 사유 △수운과 소태산의 비교 △원불교의 공 사상과 윤회 등을 논의한다.

일원상에 대해 백낙청 교수는 “원불교에서 핵심이 되는 게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정의한다. 이에 대해 전도연 교무는 “우주의 궁극적 진리라고 부르는 일원상은 논리로는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라며 “말하자면 직관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걸 개발하는 방법이 불교에서 화두는 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원불교의 윤회설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전 교무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소태산께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내놓으신 걸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는 내용이지 논리로 따져서 받아들이는 대상은 아니”라며 “인과보응에 기반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세상은 답이 없는 혼란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불교가 세계적 주교(主教)가 될 것’이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예언이다.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중생의 혜·복(惠福) 두 길을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니라.”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중생의 혜·복(惠福)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불교, 원불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의 지향 아닐까. 여수령 기자

